

2007. 4. 16 제165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4. 16 제165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

도시경영·경제

1. 상점가에 '거리의 역' 휴게소 설치 (도쿄都 스기나미區)
2. 능력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신 승급제 도입 (일본)
3. 산·학·관 공동연구 성과 보고 (도쿄都)
4. 區 직원 독자채용 선언 (도쿄都 스기나미區)
5. 일본에서 '상해 주간' 홍보행사 개최 (상해)

디지털도시

6. 도보여행 정보 제공 (런던)
7. 시정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캘리포니아州 산호세市)

목 차

복지·문화

8. 중심 시가지에 육아지원센터 건립 (일본 사가市)
9. 식당에 위생상태 등급 표시 제안 (뉴욕州)
10. '소녀의 날' 행사 홍보 (베를린)

도시환경

11. 녹지공간의 소리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런던)
12.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상' 제정 (런던)
13. 에너지효율과 대안에너지 관련 기술자 양성 (런던)
14. '그린수도' 프로그램에 응찰 (영국 브리스틀市)
15. 템스강에 강바닥 터널 설치 (런던)
16.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성 모니터링 제안 (영국)
17. 국립공원 지정 재검토 (일본)
18. 폐식용유 재활용 증가 (일본 니가타市)
19. 수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 추진 (북경)

도시교통

20. 황금알을 낳는 택시사업 (뉴욕)

도시계획·건설·주택

21. 온라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런던)

[벤치마킹 사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

<주요 내용>

- 런던시는 2004년 1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를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10개년 전략 계획’(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y)을 수립해 추진함.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은 원래 기초자치단체 소관이었으나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러 행정부서에 분산돼 있는 만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총괄기획·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04년 4월 시장 직속의 아동·청소년부(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를 발족함.
 - 아동·청소년부는 홍보와 청소년 활동 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런던시 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 평가, 연구조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아동·청소년 10개년 전략 계획은 건강·여가, 역량강화, 안전, 사회참여, 경제 등의 5개 분야로 구성돼 27개 과제의 85개 세부사업을 제시함.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런던 거주 어린이의 빈곤 및 경제 상태, 건강, 여가문화, 교육, 안전, 가족, 사회참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런던 아동 보고서’(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Report)를 작성함.
 - 런던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정책 주류화, 청소년 활동 사업의 지역화,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이란 세 가지 전략을 채택해 추진함.
 - 청소년 정책 주류화로는 행정부서별 업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 전략으로 자치단체가 여가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놀이공간 확보 지침서’를 작성해 보급함.

- 런던市 아동·청소년부는 런던청(Government Office for London)과 런던 지방정부협회(The 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와 협력해 런던市, 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청소년의회 등을 연계하고 시정 관련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를 출범함.
 - 런던市에 거주하는 7~18세 청소년은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해 시정의 의사결정자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의 청소년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정책결정자들과 만남.
- 런던市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www.london.gov.uk/young-london)를 2005년 6월에 개설함.
 -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의 설계 및 운영의 세 가지 기준은 흥미 있는 내용과 주요 이슈를 적절히 수용할 것, 교사가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를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수업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와 청소년이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는 동일한 주제라도 어린이, 10대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해 연령대별 특성 및 관심사를 고려한 정보를 제공함.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가, 스포츠, 교육, 예술문화 등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함. 런던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두 가지 사업을 펼침.
 - 첫째, 런던시는 런던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매년 1주일 동안 대규모 춤판(Big Dance)을 벌임.
 - 이 기간에 지역별로 다양한 무용 공연 및 경연대회, 무용 워크숍, 댄스 마라톤, 기금 모으기 댄스 이벤트 등 춤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개최함.
 - 학생들이 이 기간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춤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함.
 - 둘째, 런던시는 런던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런던 청소년 웹사이트에 제공함.

<해설 및 평가>

-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문화, 교육, 안전, 가족, 경제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이 필요함.
 - 이런 점에서 런던시는 시장 직속의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 행정부서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10개년 종합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임.
- 런던시는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함.
 - 런던 청소년 네트워크는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 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놀이공간을 직접 공급함. 이를 위해 런던시는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해 제공함.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런던시는 런던 전역에 걸친 대규모 행사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과 전략을 현재 갖고 있지 않음.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정부서가 협력관계를 구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 현재 기관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미흡한 수준임. 청소년 활동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시 청소년과 외에도 자치구를 비롯하여 여러 행정부서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 그러나 기관별 역할분담과 정보공유가 미흡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청소년과가 간사 및 가교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구축함.
 - 첫째, 서울시 행정부서 중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부서(문화국, 복지건강국, 푸른도시국, 산업국, 교통국 등)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서울시 청소년과와 자치구의 청소년 부서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를 함.
 - 셋째, 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면 기관별 청소년 사업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사업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짐. 청소년 사업의 종합적 추진과 시너지 효과로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1. 상점가에 ‘거리의 역’ 휴게소 설치 (도쿄都 스기나미區)

○ 도쿄都 스기나미(杉並)구가 국도변 휴게소의 상점가에 ‘거리의 역’ 휴게소를 설치함. 거리의 역은 휴식공간, 화장실, 이벤트 공간이 갖춰진 개방 공간임.

- 이오기(井荻)역 앞에 설치한 ‘거리의 역’은 원래 라면가게였는데 가게 주인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싼 가격으로 내놓고 상점가가 매입해 도쿄都와 스기나미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수함.
- 목조 2층 건물에 약 60㎡ 규모로 1층에는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있고 2층에는 혈압계 등의 기기를 비치함.



건강체크를 하는 사람으로 붐비는 ‘거리의 역’

- 개소 기념 행사로 2층에서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하는 행사가 열리고, 역과 상점가의 변천을 소개하는 사진도 전시돼 방문객으로 붐빔.
- 스기나미區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거리의 역 설치 보조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에 확대 실시할 예정임. 區는 거리의 역을 설치할 상점가를 계속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힘.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3. 18)

>>> 전문가 검토의견

- ‘거리의 역’(道の駅)은 일본 전역의 국도변에 설치된 휴게공간으로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반영해 특징적인 형태로 꾸며져 있으며 지역 특산품이나 산업과 연계된 관광자원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구성된 건물이나 코너에서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거나 지역의 역사 홍보관 및 지역 산업의 체험 및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해 방문객에게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판매수익도 올리는 공간임.

- 거리의 역과 같이 토속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을 서울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하지만 거리의 역 아이디어를 차용한다면 서울시내 주요 역이나 간선도로변에 개방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의 쉼터로 이용하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홍보관 및 방문객의 이용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임.

/백선혜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2. 능력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신 승급제 도입 (일본)

○ 일본정부는 2007년부터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승급과 관련해 근무실적을 세세하게 반영하는 새 제도를 도입함.

- 새 제도는 기존의 보통승급과 특별승급 제도를 통합하고 승급 근거인 근무실적을 5단계로 구분 평가하는 방식임. 능력에 따른 인사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대부분의 직원을 1년에 1호봉씩 자동 승급시키는 보통승급과 각 부처 정원의 15% 내에서 근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1호봉 승급시키는 특별승급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되는 실정이었음.

- 근무실적은 ‘지극히 양호’(8호봉, 정원의 10%), ‘특히 양호’(6호봉, 정원의 30%), ‘양호’(3호봉), ‘약간 양호하지 않음’(2호봉), ‘양호하지 않음’(0호봉) 등 5단계로 나눔.

·새 제도의 1호봉은 예전 제도의 1/4호봉에 해당하므로 ‘지극히 양호’(8호봉)를 받는 경우 예전 제도의 2호봉과 같아짐.

·이렇게 해도 급여 지급 총액은 크게 변동 없음.

- 승급 시기는 연 1회로 연초에 간부만 해당하지만 2008년부터는 전 직원에게 적용할 방침임.

(www.yomiuri.co.jp/politics/news/20070107i502.htm)

3. 산·학·관 공동연구 성과 보고 (도쿄都)

○ 도쿄都 기타區와 이타바시區는 3년 동안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KICC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를 열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상품을 전시함. KICC란 기타區, 이타바시區, 클러스터, 커뮤니티의 머리글자에 서 따온 것임.

- 비교적 공장이 많은 기타區와 이타바시區는 복지, 의료, 건강을 테마로 연구 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해 옴.

·이타바시區 소재 회사는 골절 예방용 속옷을 개발해 부드러운 소재로 만 들어 입기 편하도록 했으며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 여성 고령자 의 수요에 대응했음을 강조함.

·기타區 소재 회사는 센서를 내장한 배설물 처리 패드 시스템을 개발해 대 변과 소변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냄새도 제거한다고 설명함.

- 기타區와 이타바시區는 2007년에 이와테(岩手) 대학교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조(製造) 야간 대학교를 설립할 예정임.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3. 20)

한줄 뉴스

<영국>

-리즈市,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로 영국정부가 주관하는 제8회 우수 자치단체상 수상

-통계청과 교통부 공동조사 결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의 그린행동(Green Behavior)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조사 대상자의 75%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구입을 위해 비용을 더 지 불할 수 있다고 답변함. 이는 2005년 71%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임.

4. 區 직원 독자채용 선언 (도쿄都 스기나미區)

- 도쿄都 스기나미(杉並)구 야마다 히로시 구청장은 2007년 2월에 區 직원을 독자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직원 독자채용은 시·정·촌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지만 특별구에서는 숙원이었음.
 - 특별구 직원 채용은 특별구 공동 인사위원회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실시하고 합격자가 성적순에 따라 희망하는 區의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인기가 높은 區에 성적이 좋은 합격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인사위원회는 성적 상위자가 특정 區에 집중하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도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거나 모집 인원이 많은 區의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함.
 - 특별구가 도쿄都의 내부 단체로 하향 조정됐던 시대에는 각 區에 도쿄都 직원이 배속됐지만 1975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동 인사위원회와 공동 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함.
 - 자체 채용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는 에도가와(江戸川)구는 처음부터 독자채용을 고집했던 독특한 구조로 당시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욕이 있는 직원을 각 區가 채용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걸쳐 획득한 인사권이 갖는 진정한 취지”라고 말함.
- 오타(大田)구는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상에 맞는 연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특별구가 공동으로 실시해 온 직원연수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려고 함.
- 대도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일본 유일의 행정체제인 특별구가 각자 독자적인 색깔을 추구하고 자립하려는 시대 흐름에 대응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3. 18)

5. 일본에서 ‘상해 주간’ 홍보행사 개최 (상해)

- 상해市 신문판공실과 상해 EXPO 사무협조국, 상해市 관광사업 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본 ‘상해 주간’ EXPO 홍보행사가 2007년 3월 18일 개막됨.
 - 45일간 동방항공 ‘상해 EXPO호’ 여객기가 상해市와 도쿄 간에 운행되고, 도쿄공항과 시가지 중심지역 간에 운행되는 고속열차 8개 차체에 320여 점의 상해市 관련 사진을 전시하는 등 홍보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 상해市는 2010년 상해 EXPO 기간 중 상해市를 찾는 인파가 7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100만~150만 명이 일본 관광객 및 행사 참가자일 것으로 예측함.



(상해 東方早報, 2007. 3. 18)

한줄 뉴스

<런던>

- 2007년 3월 25일 세인트 존스 우드역에서 독가스 테러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1주일 뒤 동일한 훈련을 실시한 후 독가스 확산경로 분석
- 2007년 3월 교통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해 278명의 ‘교통안전 경찰팀’ 구성
·교통안전 경찰팀은 공공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반사회적 행위 등을 기존 경찰과 연계해 예방하는 역할 수행

6. 도보여행 정보 제공 (런던)

○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보는 도보여행 섹션으로, 런던시내 각 區별로 다양한 산책 경로와 산책 및 도보여행 월별 행사를 소개하고 템스강변 등 주요 명소 중심의 산책로 지도와 산책하며 감상할 수 있는 풍경 정보를 제공함.

- 홈페이지의 실시간 교통경로 검색 서비스(Journey Planner)에서도 도보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현 지점과 도착지점을 입력하고 고급검색에서 교통수단을 ‘걷기’(walking)로 선택하면, 지점 간 도보여행 시 최단경로와 예상 소요시간을 알 수 있음.

- 대중교통 우선 교통체제를 강조해 온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런던을 2015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Walking Plan for London’ 정책을 2004년 발표한 바 있음.

(www.tfl.gov.uk/assets/downloads/walking-plan-2004.pdf)

(www.tfl.gov.uk/gettingaround/walking/1156.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는 산책이나 도보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고 확대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실시 중임.

·서울시내 공원과 한강, 자전거 도로를 산책로에 연결하는 연결로(Green Way)를 설치할 계획이며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시 공원, 자전거 도로, 도보관광 코스, 서울시 숲속여행 프로그램, 한강 생태공원 등 다양한 도보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함.

·청계천과 같은 서울시내 관광자원 정보를 시민이 참여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를 활용해 제공할 계획이며 연내 실시 예정임.

- 하지만 산책·도보여행 정보가 서울시 각 국·실이나 구청별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어 런던의 도보경로 검색 기능처럼 실제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통합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웰빙과 건강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높은 호응이 기대되는 정보 서비스로서 서울시의 선진화된 GIS 포털 서비스와 연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jang@sdi.re.kr)

7. 시정을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市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지리정보체계를 정비해 2007년 4월 17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임.
- 지리정보체계는 도시정보를 지도로 표현하는 기본 기능 외에 상세한 도시지도 서비스, 온라인상 건축정보, 도시 내 개발사업 정보, 도시공원 정보 등을 제공함.
- 산호세市는 지리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는 시스템도 구축해 市 지리정보체계가 앞으로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www.sanjoseca.gov/gis)

복지 · 문화

8. 중심 시가지에 육아지원센터 건립 (일본 사가市)

- 일본 사가(佐賀)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 센터를 2007년 4월 중순에 설립함.
- 시가지 중심에 있는 재개발 빌딩 2층을 공공시설로 만들고자 고민하던 市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 미만의 아이가 과반수이고 부모가 육아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육아지원센터를 짓기로 결정함.
- 센터 면적은 약 700㎡로 설비·비품 구입에 약 1억 2000만 엔(약 9억 5000만 원)을 들임.
-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주말 포함)이고 상담사와 보건사를 배치함.
- 상담실에는 부모가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2000~3000권의 책을 비치하고 놀이시설을 갖추.
- 부모가 쇼핑이나 병원 진료 등 급한 불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수도 있음.



(www.yomiuri.co.jp/e-japan/saga/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일본의 핵심 보육사업 중의 하나인 육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 기존의 보육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해법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육·양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기보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육아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추가·재정비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9. 식당에 위생상태 등급 표시 제안 (뉴욕州)

- 제프 클레인 뉴욕州 상원의원이 2007년 3월 25일 뉴욕州 식당을 대상으로 뉴욕州 보건국이 실시한 위생검사 결과를 A에서 F로 나눠 이를 각 업소에 부착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식당의 위생검사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업소가 이와 관련된 경고문이나 검사 결과를 부착할 의무는 없음.
- 클레인 상원의원은 각 업소에 표시된 등급은 소비자가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어떤 소비자도 F등급을 받은 식당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모든 식당이 위생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함.
- 앤드류 터커 뉴욕州 보건국 대변인은 클레인 의원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등급제는 각 업소의 위생상태를 정확히 대변하지는 못한다며 현재 보건국이 실시하는 위생 점수제는 각 업소의 위생상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설명함.

(미주 중앙일보, 2007. 3. 26)

10. ‘소녀의 날’ 행사 홍보 (베를린)

○ 베를린市는 매년 4월 26일에 5~10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소녀의 날’(Girls’ Day) 행사를 개최해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주류인 기술, 자연과학, 수공업 관련 직업과 기업에서의 여성의 지도적 위치를 살펴볼 기회를 가짐. 기업은 여학생의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열린 소녀의 날 행사에 2만 7400명의 여학생이 800개의 행사에 참여함.

- 해롤드 볼프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향후 베를린市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 직업군인 자연과학과 기술, 수공업 분야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3/22/74899/index.html)

한줄 뉴스

-뉴욕州 롱아일랜드, 쿨드 스프링 하버역에서 오리엔트 포인트 페리 터미널까지 135km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도쿄都, 거리 방범 카메라 50대를 추가로 록본기역과 이케부쿠로역 주변에 설치
·거리 방범 카메라 설치로 2006년 범죄 발생건수가 2001년 대비 약 150건 감소함.

-상해市 인테리어협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인테리어업체 선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업체에 ‘성급(星級) 기준제’ 적용

11. 녹지공간의 소리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런던)

○ 런던시가 주관한 ‘도심 녹지에서 소리환경(Sound Environment)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에 동물원·공원 관계자, 소음제어 기술자, 소리환경 설계 관련 전문가, 음악가 등이 모여 바람직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도심 녹지의 필요성과 관리 대안에 대해 토론함.

- 전문가들은 새 소리나 물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다고 지적함.
- 런던시는 2004년 환경소음 대책인 ‘Sunder City, the Mayor’s Ambient Noise Strategy’를 수립해 시행중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210)

>>> 전문가 검토의견

- 공원 방문객이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일 외에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한다면 심리치료 효과도 얻고 쾌적감도 더 느낄 수 있을 것임.
·공원의 지형적 형태와 사람의 행태 등을 고려해 공원을 설계함으로써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상대적인 정온감을 가져오게 하고 조용한 곳에서는 전원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함.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몇몇 대규모 시립공원을 소리환경과 결부시켜 소음을 분석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공간별 소리환경 만족도를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소리환경 설계 관련 전문가와 공원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공원 내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고 자연음과 환경 음악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원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2.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상' 제정 (런던)

○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후변화 교육과 실천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런던시와 런던 시내 28개의 자치구가 '런던 학교 환경상'(London Schools Environment Awards)을 제정함.

- 2007년 3월 런던시장이 페어롭(Fairlop) 초등학교가 만든 허브정원, 연못, 초목지를 방문한 후 이 초등학교에 '런던 학교 환경상'을 수여하고 학생의 성과를 고무하기 위해 상금도 지급함.

- 시상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일을 실천하도록 장려한다고 市 관계자가 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293)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대책, 자원·폐기물 대책, 자동차 오염 대책, 교통 대책, 자연환경 보전 대책 등 6개 분야 43개 세부시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는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환경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의 질 사이의 역동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세대에 걸쳐 환경보전의 실천주체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2007년 4월 2일 발표한 '서울 에너지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를 2020년에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이 절실함.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의 현장 체험, 참여 만족도, 이행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과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 함. 청소년 대상 '서울 에너지 꿈나무상(賞)'(가칭) 시상과 같은 유인장치도 필요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3. 에너지효율과 대안에너지 관련 기술자 양성 (런던)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런던 에너지 파트너십’(London Energy Partnership)이 런던 개발청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 및 법·제도 정비가 활성화됐지만 전문기술 및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짐.
 - 연구보고서인 ‘런던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격차’는 6개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가 에너지 관련 신 전문기술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양성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데 산업계, 학계 및 런던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런던 직업훈련위원회(London Skills and Employment Board)를 필두로 런던 시장 및 개발청은 기후변화 실천계획과 연계해 연구 제언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310)

14. ‘그린수도’ 프로그램에 응찰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Bristol) 시의회는 브리스틀 파트너십에서 주관하고 영국 환경청과 브리스틀市가 후원하는 ‘그린수도’(Green Capital) 프로그램에 응찰함.
 - 영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수도를 만들겠다는 브리스틀 시의회의 결단이 응찰 배경임.
 - 비즈니스와 도시교통, 통행, 건설, 음식업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린수도를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할 계획임.
 - 2008년까지 3만 4000개의 거리조명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이전보다 13% 줄일 계획이라고 市 관계자가 말함.

(www.rudi.net/news/15743)

15. 템스강에 강바닥 터널 설치 (런던)

- 2000년 발족한 ‘템스강 타이드웨이 연구모임’(Steering Group of The Thames Tideway Strategic Study)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9~2020년까지 30km의 강바닥 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 19세기에 만든 런던의 합류식 하수도는 인구 증가로 점점 늘어나는 하수량과 우천 시 관거를 넘쳐흐르는 월류(overflow)로 인해 도시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됨. 현재 매년 5200만^m³ 가량의 미처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비가 오면 저지대의 침수위험도 증가함.
- 이 모임에 환경식품농무부, 환경청, 민간 수처리·상하수도 공급회사인 템스워터, 런던시 관계자가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물산업규제기관인 Ofwat은 참관인 자격으로 입회함.
- 터널 설치 예상 비용 20억 파운드(약 3조 7000억 원)를 확보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나 일부는 하수도 사용료에 반영할 계획임.
- 영국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이번 사업은 앞으로 설계 및 재정보호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www.defra.gov.uk/news/2007/070322a.htm)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292)

한줄 뉴스

<북경>

- ‘앞서가는 서비스형 기관 창건, 협조하는 납세징수 관계 수립’이란 주제로 시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시민과 세무국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질의응답 진행
- 2007년 4월부터 중국은행에서 2008년 북경 올림픽 대회 입장권 예매 실시
-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국은행에서만 예매할 수 있으며 중국은행측은 올림픽 마케팅 기회로 삼을 계획임.

16.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성 모니터링 제안 (영국)

- 영국의 ‘건축 분야 감시단’(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건물 건축 후 에너지효율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감시단은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 이상적 제안과 현실적 실현 방안에 큰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건물이 솔선수범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도 동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이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Planning, 2007. 3. 26)

17. 국립공원 지정 재검토 (일본)

- 일본 환경성은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2008년부터 일제히 재검토하고 36년 만에 국립공원 선정 요령을 개정하기로 함.
 - 1971년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뛰어난 자연풍경’을 국립공원 선정 기준으로 개정했으나, 최근 경관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등에 관한 평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함.
 - 아마미 군도와 오키나와 지역을 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2008년부터 현지 조사하기로 함.
 - 현재 83곳에 이르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3년간 재검토에 들어감. 경관 가치가 훼손된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을 취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원명은 개정함.

(요미우리신문, 2007. 3. 10)

18. 폐식용유 재활용 증가 (일본 니가타市)

- 일본 니가타(新潟)시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실시하는 폐식용유 재활용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함.
 - 초등·중학교 급식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ℓ의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 연료(BDF)로 재활용해 시내 공용차의 연료로 이용하고 있음.
 - 환경을 배려한 연료인 바이오 디젤 연료는 니가타市の 경우 제조비용이 1ℓ에 100엔(약 800원)으로 경유와 거의 같음.
 - 2005년에 5000ℓ이던 BDF 생산량은 2006년에 1만 5000ℓ로, BDF를 사용하는 공용차도 7대에서 27대로 증가함. 2007년에는 연간 4만ℓ를 생산하고 공용차도 40대로 늘릴 예정임.
 - 유채꽃을 재배해 채취한 유채유를 학교 급식에 사용한 후 바이오 디젤 연료로 재이용하는 '니가타 유채꽃 플랜'도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음.
 - 2006년에는 3만㎡ 밭에 유채꽃을 재배해 160ℓ의 유채유를 채취함. 2007년에는 재배면적을 7만㎡로 넓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도 회수할 예정임.

(요미우리신문, 2007. 2. 14)

19. 수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 추진 (북경)

- 북경시장과 시의회 부서기가 참석한 북경市 153차 시장업무회의에서 북경市 용수공급 계획과 수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을 논의함.
 - 市 수도국은 2007년 용수공급과 절약방안 관련 보고에서 2007년 공급계획은 35억 5000만㎥로 2006년 대비 1억 2000만㎥가 증가한 수치며 한 해 동안 수자원 공급량이 도시용수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망함.

- 市는 환경친화형 도시, 자원절약형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 부문과 시민이 협력하는 수자원 절약운동이 절실하다고 선언함. 수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절수기술 개발, 농업용수 절수시설 건설, 절수기구 보급 사업과 수자원 절약 캠페인 등 시민의 절수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기로 함.

(www.beijing.gov.cn/zfzx/zwxz/zfhy/t749510.htm)

도 시 교 통

20. 황금알을 낳는 택시사업 (뉴욕)

- 현재 뉴욕 시내에는 약 1만 3000개의 메달리온(택시 영업 면허)이 있음. 뉴욕의 택시사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18억 달러(약 1조 6800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2억 4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4만 명 이상의 택시기사를 거느린 산업으로 성장함.
- 메달리온의 2/3는 투자자가 에이전트 등을 통해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1/3은 소유자가 직접 운행함.
 - 회사 형태(2대 이상 소유)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나 개인이 소유할 경우 일정 시간 직접 운전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 메달리온은 대출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데 메달리온 사업이 투자자를 유혹하는 이유는 바로 자산 가치의 증가임.
 - 1963년 2만 5000달러(약 2331만 원)이던 것이 1977년 5만 달러(약 4662만 원), 2004년 30만 달러(약 2억 7972만 원)로 늘었으며 2007년 1월에는 41만 달러(약 3억 8228만 원)임.
- 메달리온 시스템은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투자자 또한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안정된 고용시장과 뉴욕의 활발한 비즈니스 때문에 메달리온이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음.

(미주 중앙일보, 2007. 3. 23)

21. 온라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런던)

- 런던 개발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유치에 맞춰 재개발이 한창인 템스 게이트웨이 지역의 택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템스 게이트웨이 개발공사와 템스 게이트웨이 런던 파트너십, 런던 개발청은 국내·외 택지개발 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사이트(www.lda.gov.uk/ThamesGateway)를 공동 개발함.
 - 이 사이트에서 개발 가능한 택지의 소유자, 면적,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취득여부 등을 얻을 수 있음.
 - 런던시는 템스 게이트웨이 지역에 2016년까지 주택 10만 호를 지을 계획임.
 - 영국 최초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주택 1000호가 들어설 Alber Basin 1단지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인 Beam Reach 6 등 다양한 테마로 개발될 예정임.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2007년 하반기에는 상가 개발 관련 정보도 제공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1848)